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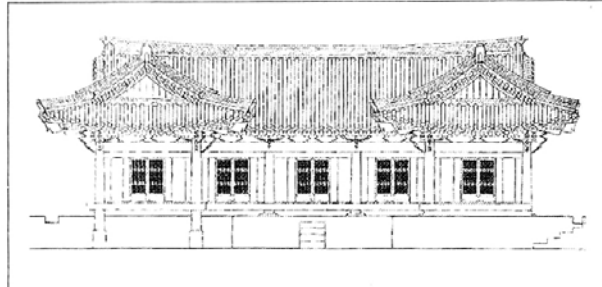
북한사찰 61곳 건축연구

국립문화재연구원 '북한문화재해설집-사찰건축편'

사진-도면등 총망라...통일후 사찰복원 자료



평북 함산군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사찰 보현사 축성전.



보현사 축성전 정면도.

북한 현존 사찰 61곳의 사진, 도면자료 및 상세한 해설을 덧붙인 총체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진)가 발간한 <북한문화재해설집 II-사찰건축편>은 북한 사찰에 대한 해설, 관계문헌목록 외에도 생생한 칼라사진 2백매, 흑백사진 47매, 도면 1백65매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 해방후 50년동안 건축사연구에서 제외되었던 북한 사찰건축의 도면까지 실어 집중 분석하고 있는 이 해설집은 북한 사찰건축에 대한 기본 자료로서 통일 후 사찰의 복원과 중흥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올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한층 발간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평양 3곳, 개성 3곳, 황해남북도 10곳, 강원도 11곳, 평안남북도 21

곳, 양강도 1곳, 함경남북도 12곳 등 총 61건 사찰 가운데 최초의 다포계 건물인 연탄 심원사 보광전, 성불사 응진전 등의 고려시대 건축물과 북한 최대 사찰인 묘향산 보현사, 구리기동으로 축조한 금강산 보덕암, 자연 바위굴을 이용한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 사공(刹拱)이란 특이한 공포형식을 가진 유일한 사찰 안국사 대웅보전 등 귀중한 건축물의 현존사태를 사진, 도면과 함께 해설해 놓았다. 성불사 극락전, 석왕사 호지문, 보현사 만세루 등 전경 중에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많은 수의 사찰건물들은 당시 사진이나 도면을 현재 사진과 비교해 복구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설집 후반부에는 북한의

사찰 건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도 거론하고 있다. 남북간 건축용어의 이질화와 역사문화화 바라보는 북한의 국수주의적 시각, 종교적 의미를 삭제한 채 유원지·휴양지화한 사찰 보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유적 답사를 통한 문화교류 실시를 우선 제안하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건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 고유한 건축의 정체성을 밝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북한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책과 북한 지역 도시개발에 대비한 보호구역 설정·보존 실행계획 등도 통일을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nia.com)

제3회 민해상 수상자

- 평 화 상-윤정옥교수
- 학 술 상-조동일교수
- 시문학상-정완영시인
- 포 교 상-우리는선우



윤정옥교수



조동일교수



정완영시인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인 남지심(오른쪽)·박광서씨.

민해상상설선선양회(회장 명호근)가 민해한운운 스님의 생명사랑 나라사랑 겨레사랑 평화사랑의 뜻을 기리기위해 제정된 민해상의 제3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민해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는 16일 민해 평화상에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겸 이화여대 교수, 학술상에 조동일 서울대 인문대 교수, 시문학상에 정완영 시조시인, 포교상에 우리는 선우(공

동대표 박광서 남지심)를 선정 발표했다. 윤정옥 교수(74)는 역사의 희생자인 중군 위안부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등 정신대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이 인류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사> 등 저작과 연구를 통해 한국학계의 최대 과제라 할 식민사관 극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민족주체사관을 확립, 이러한 업적이

문학사뿐 아니라 정신사·사상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또 정완영 시인은 1960년 등단 이래 40년동안 민족문학의 정수라 할 시조창작에 있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 감각적 서정과 형식적 변용을 통해 시조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했고 민중정신 탐구, 생명사랑과 인간애의 추구가 만해의 문학정신과 그 열매가 잇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선우'는 장기기증운동, 난민구호사업, 자비의등달기 운동 등 탁월한 포교 활동과 함께 청소년과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로 불교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26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이경숙 기자(gslee@buddhania.com)

황룡사지 전시관 3월중 발굴허가

분황사 동편 공터에 2002년까지 건립 전시실·영상세미나실·수장고등 계획

황룡사지 전시관이 전통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건립된다. 전시관의 외형을 황룡사지 9층탑을 본뜨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던 당초 계획은 고층이 어렵고 예산부담이 많아 취소됐다. <본지 133호 19면·160호 7면 참조>

지난해 1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경주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황룡사지 전시관은 3월중 발굴허가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립부지는 황룡사지 남쪽 미탄사당 일대에서 분황사 동편 공터로 변경된 상태이다.

대지 7천4백여평 연건평 1천평 규모로 지어지는 전시관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4만여점이 전시되는 전시실과 발굴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모형전시실, 영상세미나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 현장감을 살리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등 기존의 박물관과는 차별화를 기할 계획이다.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에는 올해 11억4천여만원이 배정됐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nia.com)

불전공화 무료강습 예담꽃꽂이 중앙회

불전에 올리는 꽃 공양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 불전을 장식 할 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거룩한 공양이다. 꽃꽂이를 배워 꽃공양을 정성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담꽃꽂이중앙회(회장 조양자)는 각 사찰의 불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하는 불자들에게 무료로 꽃꽂이를 가르친다. 강습은 3월 6일부터 12개월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02)595-335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만이 가지고 있던 행정명령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등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매장문화재 관리제도,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 강화, 문화재매매업 허가 등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의하면 건물 신축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현재 대지 1백평, 건평 50평 규모까지만 지원되던 발굴비를 대지 1백50평, 건평 79평까지로 확대해 발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무허가 매장문화재 발굴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였던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문화재사범에 대한 일련의 벌금을 모두 상향조정해 문화재사범의 단속을 강화했다.

갯바위 캐릭터 '갯방구'로 결정



갯방구



갯방구

팔공산 갯바위 부처님 캐릭터(본지 206호 9면 참조)의 이름이 '갯방구'로 결정됐다.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갯바위 캐릭터 작업위원회를 열고 작업 공모에 참가한 8백51명 중 1백98명이 제안한 갯방구를 캐릭터 이름으로 채택. 갯방구는 갯바위의 '갯'에 바위의 경상도 사투리인 '방구'를 붙인 것이다. 동구청은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갯방구를 관광안내책자와 편지품, 양초, 열쇠고리, 의류, 문구, 인형 등으로 관광상품화해 판매수익금은 전액 실업대책·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올 4월 제1회 갯바위 관광축제 개최, 갯바위집단지식지구대 간판·안내판 제작 등 '갯방구'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펴기로 했다.

한편 동구청의 캐릭터 개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경산시측은 1월25일 특허청을 향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지연 기자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행중 지음
"항진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3-17(우 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부적을 지니면 행운이 보인다

운담 지음/ 값 9,500원

"원하는 부적을 소려서 지니세요."

환상의 부적시
위기는 진스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지음/ 값 12,000원

생명공학과 부적
박지영 지음/ 값 18,000원

도서출판 개침의 소리 전화: (02)444-3575 출판 운주사 02)720-9372